

가정 예배 모범

- 2022_03_06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3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보혈을 지나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레위기 5장 1~ 13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1-4절)

속죄제는 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거나, 2)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 등 부정한 것들을 만져 몸이 더러워졌을 때, 3)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을 때, 4)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집니다. 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때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2-3절), 때로는 알고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을 반복하고 죄를 멀리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10절, 13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죄를 용서 받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여 자신의 의지로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앞에 나아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내 안에 죄 된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